

“자원사랑은 올바른 분리배출로부터”

2011년 자원사랑 및 분리배출 한마당 행사 개최

「한국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」가 주최하고 환경부, 보령시, 속초시, 서울 및 대전SBS 등이 후원한 '2011년 자원사랑 및 분리배출 한마당' 행사가 많은 피서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. 이번 행사는 홍보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예년과 달리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(7. 16. ~ 18.) 및 강원 속초시 속초 해수욕장(8. 11. ~ 12.) 등 두 곳에서 거행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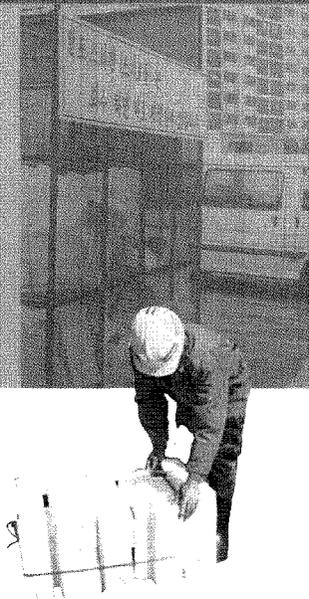
이번 행사는 6개 포장재 재활용품 및 재활용과정 홍보물 전시, 참가자들의 분리배출 체험, 환경사랑 퀴즈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피서객 및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참가자들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포장재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기회가 되었다.

특히 대천해수욕장에서의 행사는 '보령 머드축제' 행사 기간에 진행되어 SBS 토요일모닝와이드에서 자원재활용 및 휴가철 분리배출 정보 제공 등 10여 분을 방송(리포터 개그우먼 강남영)하는 등 여러 매체의 보도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.

「한국포장용기재활용단체협의회」는 당 협회를 비롯한 한국금속캔자원협회,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,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,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,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등 여섯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장재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및 녹색 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'자원순환 및 분리배출 한마당' 캠페인 등 자원 재활용 중요성을 함양하고 재활용 정책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.



스티로폴의 분리배출 요령



가정 에서는

이물질 및 라벨 완전 제거 후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합니다.

과일,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합니다.

가전용품 포장에 사용했던 스티로폴은 물건을 구입한 가전대리점에 반납합니다.

대형 유통점 에서는

각 사업장은 배출 된 스티로폴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, 별도 보관합니다.

모아진 폐스티로폴은 불순물을 제거한 후 비닐 봉지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스티로폴 재생업체에 위탁처리 합니다.

폐스티로폴 감용기를 직접 운영하면 부피가 50분의 1로 줄어든 감용물(잉고트)을 생산하여 재생원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.

